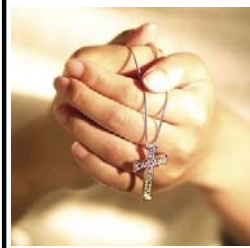


### 공동체 소식



### 대림 제1주일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저희가 이 세상에서 옳은 일을 하며,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늘 나라에 들어가 그리스도 곁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 11월 기도지향

- 서한석 시메온, 김수희 아네스 가정
- 안병환 발렌티노, 안현숙 크리스티나 가정

12월 기도지향 가정은 정준구 파비아노, 박혜정 카타리나 가정과 이우영 가브리엘, 김수연 율리안나 가정입니다.

#### 자비의 특별 희년(An Extraordinary Jubilee Year of Mercy) 선포

- 기간: Dec.8, 2015 - Nov.20, 2016

- 내용: 캔사스 대교구 홈페이지 참조 (www.archkck.org/mercy)

#### 본당 대청소

- 일정: 오늘 교중미사 후.

#### 성탄 꽃봉헌 받습니다.

- 기간: 11/29(주일) - 12/6(주일)

#### 구역별 판공성사 일정 및 장소

- 1구역: 12/10(목) 저녁07:00,

9735 Reeder st., Overland Park, 66214.

- 2구역: 12/11(금) 저녁07:00,

11321 w.131st st., Overland Park, 66213.

- 3구역: 12/12(토) 저녁07:00,

8019 w.150th st. Overland Park, 66221.

#### 성가곡 조정 안내( 대림시기부터 )

- 자비송 : 325번, - 대영광송 : 326번,

- 거룩하시도다 : 327번,

- 신앙의 신비여 : 373번 (1절-연중, 2절-대림·사순, 3절-부활)

- 아멘 : 378번, - 주님의 기도 : 387번,

- 주님께 나라와 권능 : 389번, - 하느님의 어린양 : 328번,

#### 성탄전례 연습(복사단, 성가단, 전례부)

- 일시: 12/13(주일) 교중미사 후.

####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91	218	167, 161	92

####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향 복사
이번주일	정예찬 미카엘	안광민 야고보
	정예진 한나	김준영 요셉
다음주일	이원준 요한	정병훈 보니파시오
	정채린 소피아	문호진 안토니오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김주연 세실리아	김태중 예레미야	김시연 엘리사벳
차주	김명은 안젤라	김병철 베네딕도	김경희 스킴라스티카

#### 애찬 봉사자

금주	김경희, 김인자, 안혜진
차주	김명은, 한춘희, 안복선

#### 헌금 봉사자

금주	문문주 엘리사벳, 고영방 스테파노
차주	박희영 카타리나, 이우영 가브리엘

####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성체	헌금	교무금
11/22	84명	404불	500불
(총 3 세대)			

대림 제1주일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2코린 4,18-

2015년 11월 29일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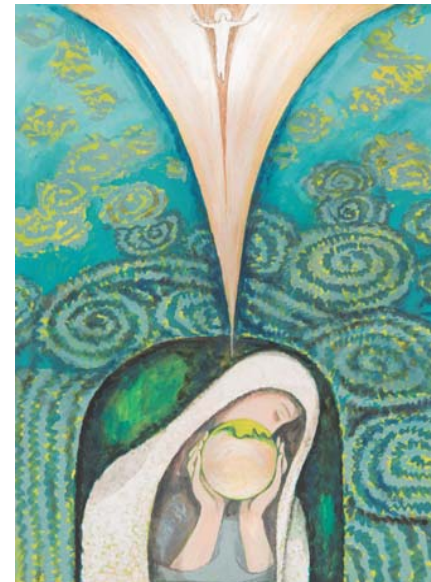
주보 편집 : 김대연 요셉 812.272.4770 moss0106@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장 홍순익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회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 오늘의 전례

오늘은 전례력의 한 해가 시작되는 대림 제1주일입니다. 대림 시기는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려고 준비하는 때입니다. 희망을 품고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 그림 묵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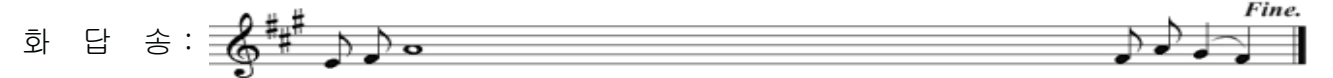
깨어 기다리는 은총의 시간

하늘을 쪼개고 내려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의 시기입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늘 깨어 기도하여라.”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깨어 기다리는 은총의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주님이 베푸시는 천상잔치에 대한 갈망으로 세상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닮아 가기를 기도합니다.

정미연 소화데레사

제 1 독 서 :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33,14-16

<내가 다윗을 위하여 정의의 싹을 돋아나게 하리라.>



주 - 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 올리 나 이 다.

○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이시옵니다◎

○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한 이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한 이 당신 길 알게 하신다.◎

○ 주님의 계약과 법규를 지키는 이들에게, 주님의 모든 길은 자애와 진실이라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와 사귀시고, 당신의 계약 그들에게 알려 주신다.◎

제 2 독 서 : 사도 바오로의 테살로니카 1서 말씀입니다. 3,12-4,2

<주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힘을 북돋아 주실 것입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여 주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복 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1,25-28.34-36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



# 쉐 마

## 깨어 준비하자



대림시기는 예수님의 탄생과 재림을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독서와 복음 말씀은 주로 기다림과 준비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그런데 '기다림'이라는 말을 들으면 종종 현재와 미래를 서로 가른 뒤, 미래라는 장소에는 영원한 생명, 새 하늘과 새 땅, 하느님 나라 등 이상적인 단어를 모조리 집어넣고, 현재라는 장소에는 어려움, 갈등, 부족함, 죽음과 같은 부정적인 것을 죄다 넣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현재의 어려움과 고난, 십자가를 잘 이겨내면, 미래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 현재를 영원한 것과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하지만 종말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곧,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2000년 전 처음 이 땅에 육을 취하여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마련해 주신, 그래서 이미 당신을 믿는 이들이 누리는 구원의 삶을 완성해 주시러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지, 현재의 상황을 전복시켜 줄 새로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을 통해 이미 가까이 와 있는 하느님 나라가 온전히 이 땅 위에 내리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세례를 통해 이미 누리게 된 영원한 생명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미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을 온전히 누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종말에 가서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여전히 죄악이 판을 치고 있고, 우리 역시 그 죄스러움을 온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곧 하느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항상 깨어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다하더라도, 우리에게 죄스러운 성향이 남아 있

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미리 맛보고 있지 못하다면, 그래서 그런 것들은 미래에 가서나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은 결코 영원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라면 과거에도, 오늘도, 미래에도 항상 있어야 하는 것, 항상 간직하고 있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이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미 살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연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에 짓눌려 자신이 누리고 있는, 하느님께 받은 그 영원한 생명을 잊고 사십니까? 물론 세상 속에 찌들어 살다 보니, 영원에 대한 관심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저런 죄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에 놓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의 삶이 영원을 살 수 없는 삶이라고 말하며, 영원은 단지 미래라는 그릇에만 담겨 있다고 말해 버린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영원한 생명은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공허한 낱말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며, 주님의 재림을 깨어 기다리는 대림시기를 시작하는 오늘, 영원한 생명을 깨어 기다린다는 것이란 바로 지금 이 순간 그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되새기도록 합시다.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을 지니신 분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취하여 우리 가운데 머무시게 된 사건, 곧 주님 탄생 사건을 기억하는 성탄절을 깨어서 잘 준비하도록 합시다.

- 염철호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 주춧돌

## 하느님에게 힘을 선물로 받은 삼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뒤, 편안한 삶을 살게 되자 다시 하느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필리스티아인들에게 고통을 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초르아 출신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마노아였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임신할 수 없는 몸이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 무엇이라 말했을까요?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판관 13,1-25

드디어 마노아의 아내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지었습니다. 삼손은 어른이 되면서 나귀의 턱뼈 하나로 필리스티아 사람 천 명을 상대할 정도로 힘이 세졌습니다. 그 후 삼손은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 여자의 이름은 들릴라였습니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들릴라를 이용해서 삼손의 힘의 원천이 어디인지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결국 들릴라는 삼손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삼손의 힘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러다가 삼손은 어떻게 힘을 잃게 되었을까요?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판관 15,9-16,22

힘이 빠진 삼손은 필리스티아 군사에게 붙잡혀 혹독한 복수를 당합니다. 힘센 용사였던 삼손도 여자의 꾀에 빠져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말았지요. 삼손은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옆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삼손은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머리카락

도 조금씩 자라났습니다. 어느 날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제사를 바치기 위해 한데 모였는데 그들은 삼손을 끌어내어 갖은 조롱을 다 퍼붓고 삼손을 기둥 사이에 세워 놓았습니다. 그러자 삼손은 자기 손을 붙들어 준 소년에게 무엇이라 부탁했나요? 그리고 그 후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판관 16,23-31

삼손은 우여곡절 끝에 다시 힘을 내어 집을 무너뜨리며 복수를 실행했습니다. 수많은 필리스티아인들이 죽고 삼손 자신도 신전에 깔려 최후를 맞습니다. 삼손은 힘이 강했지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긴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사람의 힘과 능력, 재주는 모두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은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생각하면서 늘 겸손해야 합니다.



- 글 허영엽 신부 | 그림 임의준 신부 -

# 복음 묵상

## 작은 촛불

원래부터 그랬답니다.  
 마음의 촛불은  
 희망의 촛불은  
 진실의 촛불은  
 세상의 빛보다  
 작고 초라합니다.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루카 21,34)

- 임의준 신부(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